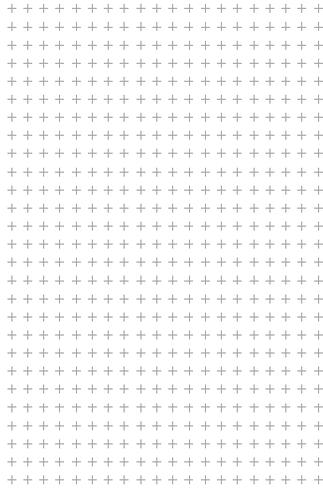


ESG와 건설산업

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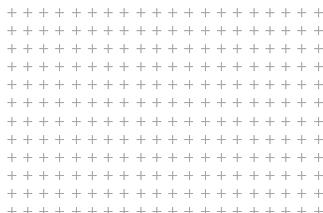
- ESG 개요
 - ESG경영의 추세와 대응
- ESG 내용 및 동향
 - (E) ESG의 주요 내용 및 동향 :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 (S) ESG와 건설산업 : 사회(Social) 분야
 - (G)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ESG 조성방안 : 지배구조·협력을 중심으로
- 건설업의 ESG 대응 방안
 - 포스코건설 사례를 통한 건설업의 ESG 대응방안
 - 건설사업의 ESG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CONTENTS

2021.10 | Vol.43

	논단1 ESG 개요
02	ESG경영의 추세와 대응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논단2 ESG 내용 및 동향
12	(E) ESG의 주요 내용 및 동향 :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구지선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19	(S) ESG와 건설산업 : 사회(Social) 분야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26	(G)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ESG 조성방안 : 지배구조·협력을 중심으로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논단3 건설업의 ESG 대응 방안
36	포스코건설 사례를 통한 건설업의 ESG 대응방안 박철호 포스코건설 기업시민사무국장
45	건설사업의 ESG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논단 1
ESG 개요



ESG경영의 추세와 대응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aelim@sogang.ac.kr)

- I. 서론
- II. ESG의 개념과 동향
- III. ESG 추진현황과 애로요인
- IV. ESG 실행의 한계와 문제점
- V. 결론과 시사점

1

I. 서론

2021년에 들어와 갑자기 ESG가 뜨거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은 총수가 신년사에서 ESG경영을 선포하였고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사적으로 ESG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SG를 도입한 대기업들은 거래 중소기업에도 ESG 기준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중소기업에게 ESG경영을 확산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중소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ESG 인증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용자와 같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준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ESG추세에 편승하여 공공사업에 ESG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ESG가 경영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ESG를 다루는 포럼과 아카데미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다. 언론에는 연일 ESG에 관한 기사가 쏟아진다. ESG경영을 도입하려는 기업과 기관들이 증가하면서 컨설팅회사들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ESG학회까지 새로 출범하였다.

이런 ESG 열풍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갈래로 엇갈린다. 신봉자들은 ESG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미래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회의론자들은 ESG를 실행할 여건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무늬만 ESG로 보여주기식(showing)의 형식적 수준에 그칠 것을 우려한다. 비판론자들은 지금까지 반짝 떴다가 사라진 수많은 경영혁신 운동과 같이 ESG도 곧 사그라질 것이라고 깎아내린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지 고민이다. ESG가 새롭게 등장한

II. ESG의 개념과 동향

개념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거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논의됐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수행해 온 친환경, CSR, CSV, 윤리경영 등도 이름만 다르지 ESG에 속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ESG로 통일되며 그 성과를 평가받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기업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의무적으로 ESG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다가왔다. 본 고에서는 ESG경영이 무엇을 의미하고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1. ESG 개념의 의미와 특징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영어 약자로 기업이 투명하고 윤리적 지배구조(G)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S) 환경친화적 활동을 수행(E)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SG는 기업경영의 활동영역과 책임범위를 기업 조직(G)→외부 사회(S)→지구환경(E)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표 1 기업경영의 책임범위와 활동영역 확대

	범위	대상	활동
G	기업 조직	직접적 이해관계자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S	외부 사회	간접적 이해관계자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상생협력
E	지구 환경	전체 생태계	자연보호, 자원재생, 탄소중립

지배구조(G)는 기업경영의 오랜 이슈이다. 주주, 종업원, 소비자, 협력회사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이행하는 것이다. 사회(S)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환경(E)은 기업경영의 영역을 지구환경으로 넓혀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ESG는 기업경영의 주된 목표인 이윤 추구하고 거리가 있으며, 종종 상충관계에 놓인다. 지금도 ESG의 확산에 가장 큰 난관은 ESG경영에 비용이 소요되고 이익 창출 능력이 제약받아 재무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프랑스의 대표적 식음료업체인 다농(Danone)은 ESG를 중시하다 회사의 재무실적이 악화하여 CEO가 쫓겨나기도 하였다. 이 사례는 기업 경영에 ESG를 접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시하는 증거로 인용되고 있다.

ESG가 기업경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려면 ESG성과가 어떤 형태로라도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나올 수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ESG의 동향과 추세

ESG의 역사는 오래되고 그 내용은 방대하다. ESG개념은 UN이 제시하고 추구해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념에 뿌리를 둔다. UN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을 통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일명 부룬트란트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UN의 의제로 설정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삼정KPMG 2021).

그 이후 UN은 2000년에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여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UN 국제협약(UN Global Compact, UNGC)을 발족하였다. UNGC는 환경,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전략과 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2006년 ESG를 투자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하였고, 각국의 연기금과 국부 펀드를 PRI에 가입시켜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PRI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였다. PRI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며 이런 기준을 이용해 평가한 ESG 경영수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RI가 확산하면서 ESG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표 2 UN 책임투자원칙(PRI)의 구성요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공해 산림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현대판 노예 아동 근로 근로조건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물 및 부패 경영진 보수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세무전략

* 자료: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세계 최대의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은 전세계 8500여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현황을 평가하여 AAA부터 CCC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선진국의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는 이런 ESG

등급을 고려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ESG 경영 수준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비재무적 지표로 사용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2009년 PRI에 가입하면서 ESG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들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선을 끌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사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의 ESG 공시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 조치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ESG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공시 의무화 조치와 시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이 ESG를 숙지하고 도입해 공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이재혁 2021).

ESG 열풍에 한국은행도 가세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ESG가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가령,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ESG 부실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민간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의 투자를 환경 부분의 전문기업에게 집중하고 있다.

ESG가 뜨겁게 달아오른 또 다른 배경은 전세계적으로 COVID-19로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전환, 미래차 대중화, 환경산업 기술혁신, 환경안전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산업 인프라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가 치솟았다.

미래 친환경 사업의 성장전망과 금융기관의 투자관행 변화가 맞물려 기업에게 기회와 위협을 제공하며 ESG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올해 시작된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ESG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III. ESG 추진 현황과 애로요인

ESG 공시 의무화와 친환경 사업기회의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ESG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주로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ESG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2021년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의 최고경영진 66.3%가 ESG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ESG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은 45.5%이며, 별도의 ESG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은 53.5%에 이른다.

대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갖고 도입하는 이유는 수익성과보다 기업이미지와 ESG 규제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조사에서 대기업들은 ESG를 도입하는 이유로 '기업이미지 제고'(43.2%)와 'ESG 규제'(18.0%)를 '수익 직결'(20.8%)보다 더 많이 거론하였다.

ESG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감 전망치도 차이가 없거나(33.7%)가 5% 이내(25.7%)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대기업들은 수익이나 매출 증가보다는 이미지 관리와 ESG 규제 대응을 목적으로 ESG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애로요인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29.7%),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상이한 ESG평가 방식'(17.8%), '추가비용 초래'(17.8%), '지나치게 빠른 ESG규제 도입속도'(11.9%)로 밝혀졌다.

중소기업도 ESG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비용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021년 6월 3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가 ESG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실제로 준비 중인 기업은 그 절반(25.7%)에 그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 중소기업이 ESG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는 '비용부담'(37.0%), '전문인력 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가 언급되었다.

IV. ESG 실행의 한계와 문제점

대기업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이 ESG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심각한 한계는 그 범위가 넓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가지 영역을 포괄하며 각 영역에 수많은 요소가 존재

한다. 이 많은 요소를 관리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모든 것을 잘하려 하면 방향과 초점이 분산되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요소들은 추상적이므로 정량화가 쉽지 않다. 경영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노력이 ESG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 그룹이 계열사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인사고과에 ESG성과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편차가 작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것도 이런 본질적 한계에 기인한다.

흥미로운 현상은 기업들이 ESG를 추진하면서 선택적으로 자기네 상황에 맞는 하나를 골라 ESG라고 내세우는 것이다. 몇 년 동안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어느 대기업은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변경해 ESG성으로 포장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사업에 집중투자한 기업들은 친환경이 ESG성과라고 강조한다.

이런 문제는 E, S 그리고 G가 각각 별개로 구분되며 상호연관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서로 연계되어 어떻게 종합적 성과로 연결되느냐를 보여주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잘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이를 부각해 ESG성과라고 홍보한다.

ESG를 재무적 성과와 비교해 생각해 보자. 재무적 성과는 개념이 구체적이며, 매출, 비용, 이익 등의 핵심 지표만 관리하면 되니 범위가 좁고 분명하다. 또한, 매출, 비용, 이익은 정량화가 가능하며 서로서로 어떤 영향을 주어 재무성과로 연결되는지 명확하다.

ESG경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일관성있는 성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ESG 실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재무성과는 투자수익률(ROI), 자본수익률(ROE),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ESG성과는 정성적 세부 요소들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수화하는 것에 의해 측정할 수밖에 없다.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영역의 지속가능활동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고 신뢰성있는 ESG평가가 어려운 것이다(이인형 2021). 그밖에 산업분류 방법, 산업 간 ESG 요소의 민감도, ESG평가지표의 가중치 등의 평가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ESG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SG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유형과 원천 그리고 수집방법도 영향을 미친다.

V. 결론과 시사점

특히, 환경과 사회에 관한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 외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유용하며 믿을만한 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언론 기사, 공공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고 수집하며 정리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인데 이를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자칫하면 ESG 활동 자체보다 ESG 평가에 더 많은 자원과 비용을 들여야 할 판국이다.

이런 한계로 인하여 ESG 평가의 강건성(robustness)이 취약하며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달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ESG성적을 평가하는 지표가 난립하며 각각의 평가체계가 상이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야기한다.

ESG 역사가 제일 오래된 미국에서도 ESG 평가기관마다 평가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ESG평가기관들의 평가 등급에 격차가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길남 2021).

이에 대응하여 산업통산자원부는 ‘한국형 ESG 지표체계’(K-ESG)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개발한 평가지표가 ESG평가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정부의 새로운 평가지표가 더해지는 것이 혼란을 해소할지 아니면 더 키울지는 두고 볼 일이다.

ESG는 이제 초기 도입단계이다. 아직은 ESG경영의 실행을 뒷받침할 이론 연구나 실증분석이 미흡한 상황이다. ESG를 대대적으로 확산하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ESG 성과모델이 개발되고 더불어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기반과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ESG를 도입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ESG경영이 도입단계에서 넘어 관행과 표준으로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ESG경영이 선언적으로 도입될 뿐이며 실행과 확산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ESG의 추세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이미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문제는 ESG의 도입을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가 긍정적 보상보다는 부정적 규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ESG 성과가 높은 경우 제공되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약한 반면, 저조한 경우 부과되는 처벌은 과중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안전관리에 소

홀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비윤리적이며 부패 문화가 만연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현재 입법화되었거나 상정되어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전기안전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지배규제 3법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ESG의 추세에서 당근보다 채찍에 무게 중심을 두는 제도적 변화는 기업에게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안전한 방법은 ESG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재무성과를 비롯해 다른 것을 다 잘하더라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한 요소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SG는 단기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추세로 정착될 것이다. 지금부터 ESG경영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나중에 ESG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산업별로 가치사슬의 여건에 맞춰 ESG의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업에서의 ESG 경영 이슈는 친환경 자재 구매(친환경 인증 목자재, 재활용 콘크리트 등),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반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빌딩 건축, 근로자 안전 및 건강관리로 파악되고 있다(이준희 2021). 주로 환경(E)과 사회(S)에 관한 이슈들인데 여기에 지배구조(G)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지배구조라 하면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만 생각하지만 넓게 보면 기업간 거래관계도 지배구조에 포함된다. 건설업에서 친환경 건축과 작업환경의 안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하도급 거래관계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발주처-원청 모기업-하청 협력회사 간의 지배구조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ESG는 요원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상공회의소·삼정KPMG (2021),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2. 남길남 (2021), “ESG 평가 격차와 지배구조 평가 이슈” 자본시장 포커스 2021-19호, 자본시장연구원.
3. 이인형 (2021), “ESG 평가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이슈보고서 21-09, 자본시장연구원.
4. 이재혁 (2021), “ESG 경영 정착을 위한 ESG생태계 구성원의 역할”,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3호, 2021년 7월.
5. 이준희 (2020), “한국기업들의 ESG경영을 위한 변화”,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6.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 “중소 ESG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KOSME 이슈포커스 2021-08호.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논단 2
ESG 내용 및 동향



(E) ESG의 주요 내용 및 동향 :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구지선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jisunku@gtck.re.kr)

- I. 들어가며
- II. ESG 배경 및 필요성
- III. ESG 중 환경 관련 국내외 규율 동향 및 이슈
- IV. ESG 중 환경 요소 관련 건설업이 나아갈 방향

1

I. 들어가며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정량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를 의미한다. 최근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ESG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환경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과도 맞물려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ESG에 대한 관심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ESG는 걸음마 단계이다. 아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는 법제화되지 않았고, 이제 한국형 ESG 평가지표 정립에 착수한 상황이다. 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필수가 되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단에서는 ESG 중 환경 요소와 관련된 동향 및 이슈를 살펴보고, 건설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ESG 배경 및 필요성

1. ESG의 도입 배경

ESG는 2004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가 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제시하였고, 투자자 외에도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은 ESG의 구성 요소를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① 환경 : 기후변화, CO2 배출, 자원고갈, 폐기물, ② 사회 : 노동 환경, 지역사회, 안전보건, 다양성, ③ 지배구조 : 이사회, 부정부패, 로비 및 기부, 보상체계를 제시하였다.

2. ESG 확산의 필요성 및 주요 이슈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중요성 확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은 단순히 윤리적 관점의 기업 이미지 제고에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현으로, 더 나아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을 넘어 리스크 관리, 신사업 기회, 파트너십 전략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변모하고 있다.¹⁾

(2) 책임 투자의 강화

기관투자자는 투자 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한 이래 3대 연기금이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연금은 석탄 채굴산업에 투자 제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고, 주식·채권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책임 투자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주도적으로 ESG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1) 이준희, 한국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변화 I : ESG 경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Deloitte Insight No.16, 2020, 19면

III.
ESG 중 환경
관련 국내외
규율 동향 및
이슈

(3)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의 부각

기후변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실현해야만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이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기술 개발 등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1. ESG 공시 확대 및 의무화

EU는 기업의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기존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보완·개정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18개 항목을 의무 공시해야 하는데, 환경 관련 항목은 온실가스, 탄소 발자국, 투자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화석연료 분야 기업과의 연관성,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기후 분야 에너지 소비 집약도,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폐수 방류, 유해폐기물 비율이다.²⁾ 특히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SFDR에서의 기후 및 환경 분야 의무공시 항목은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물, 폐기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ESG 공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가능보고서의 공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전 상장사에게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2. ESG 평가 지표의 일원화

기업의 ESG 경영이나 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ESG 평가 지

2) 오택현,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4 No.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5, 6면

표나 기준은 기구별로 상이하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의 기준은 환경 분야 8개 주제 30개 지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는 11개 산업군 77개 산업별로 ESG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환경 자본은 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GRI, SASB,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등은 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글로벌 표준 정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속가능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ESG 평가 항목에도 기관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K-ESG 초안은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성과, 환경경영 검증, 법규 준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를 통해 발표할 권고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위반·사고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의 경우, 직접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외에도 간접 배출량(Scope 2)³⁾과 간접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 지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관련 자율 공시체계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ESG 모범 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설비를 좌초자산(stranded asset)으로 분류하여 위험을 고려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내부탄소가격 도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ESG 중 환경(E) 관련 평가 지표

구분	정의 또는 항목	평가 지표
K-ESG 초안	환경경영 정책	환경정책 및 조직, 기후변화 대응
	환경경영 성과	친환경 비즈니스, 폐기물 배출량/재활용률
	환경경영 검증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법규 준수	환경 법규 위반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	직접 배출량(Scope 1), 간접배출량(Scope 2), 배출 집약도

3)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은 기업이 소유 및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Scope 1)은 없지만 기업이 전기, 열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구분	정의 또는 항목	평가 지표
	에너지 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물 사용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위반·사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⁴⁾	리더십과 거버넌스	환경경영 리더십,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환경경영 거버넌스
	위험 관리	환경 위험과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위험관리체계
	운영 및 성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 공급망, 친환경 사업장, 성과관리, 환경회계, 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 대응	이해관계자 설정,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환경정보 공개
국민연금	탄소배출 관리 수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
	환경유해물질 배출 관리 수준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노력 수준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 제품 인증, 제품 환경성 개선

또한 평가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ESG를 평가한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이 작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보의 객관적 근거까지 검증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과 ESG 정보 공시

(1)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TCFD) 권고안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를 설립하였고,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위험 관리와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고안(이하 “TCFD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TCFD 권고안은 크게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에 미치는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2021.8.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관리를 위한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와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테스크포스 권고안의 주요 내용⁵⁾

구분	주요 내용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에 대해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할 것
경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경영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 -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조직의 경영전략의 유연성을 설명할 것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절차를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절차를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조직의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할 것
지표·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경영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설명할 것 - Scope 1, Scope 2, 해당시 Scope 3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설명할 것 -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 목표 달성도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채택한 목표를 설명할 것

(2) EU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에서는 기후 및 환경 지표 중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 지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 발자국, 온실가스 집약도, 화석연료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과의 관련성, 재생 불가능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고영향 기후 부문별 에너지 소비 집약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는 물론 2023년 1월부터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부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과 피투자기업의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들은 해당 정보에 대한 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5)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IV. ESG 중 환경 요소 관련 건설업이 나아갈 방향

ESG는 환경, 노동 조건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나 사회 공헌 활동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SG는 기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경제적 가치 추구에 덧붙여 사회·환경적 가치를 실현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건설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첨단산업과는 달리 ESG 중 환경 요소의 실현에 어려움이 많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이상기후로 작업 환경이 변화되어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 추가적인 안전 문제 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업은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경영 전략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 외에도 친환경 인증 목자재, 재활용 콘크리트 등의 친환경 자재 구매,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바닥재, 벽지, 창호 등의 건설자재의 경우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지선·최봉석,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42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20.
2. 오테현,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4 No.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5.
3. 이준희, 한국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변화 1 : ESG 경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Deloitte Insight No. 16, 2020.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2021.8.
5.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S) ESG와 건설산업 : 사회(Social) 분야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l3water@lh.or.kr)

- I. 사회분야(Social)의 개념 및 필요성
- II. 사회분야 평가기준 및 건설업의 사례
- III. 도시재생과 사회분야, 중소건설업의 역할

2

I. 사회분야 (Social)의 개념 및 필요성

ESG 평가는 기업에게는 지속가능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지표이다. ESG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경영이념이 아니다. ‘착한 경영’, ‘착한 기업’과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단순히 착한 행위를 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김재필, 2021). 하지만 CSR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사업 영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라면, ESG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ESG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기업의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소비자, 관련기업, 그리고 기업내 근로자에 대한 사회분야(Social)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 ESC 중에서도 사회분야(Social)에 해당된다(김국현, 2021). 코로나19 이후의 시장과 사회변화로 더욱더 사회분야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노동권, 젠더 이슈 등을 포함한 기업 내·외부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SG의 사회분야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얼마나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가 핵심 평가기준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

II. 사회분야 평가기준 및 건설업의 사례

리두기 등이 일상화된 이후에는 구성원들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해고나 급여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노동환경에 대한 기업철학이 사회분야의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지 여부도 투자자들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만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보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 품질이 아닌 사회공헌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부족한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외면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ESG 중 사회(Social)분야를 중심으로 건설업 및 중견·중소 건설업의 실태를 정리하고, 향후 중소 건설업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사회분야 평가 및 관리지표

사회분야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평가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2)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상공회의소·삼정 KPMG(2021)는 관리지표로 고용관행,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차별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산업안전보건,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보호, 제품안전 및 품질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2020)는 고객만족,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인권, 노동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공통된 지표는 노동기준, 지역사회, 개인정보, 인권 및 개인 정보 등이 있으며, 향후 기업 업종 및 유형에 따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 ESG 중 사회(Social)분야 평가 및 관리지표

연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금융투자협회
평가 및 관리지표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고용관행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연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금융투자협회
	소비자 지역사회	차별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산업안전보건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 보호 제품안전 및 품질	성별 및 다양성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인권 노동기준

자료 : 각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ESG 중견·중소기업의 평가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의 평가대상기업 총 710개 기업 중에서 2011년 12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은 117개이며, 중견기업은 331개를 대상으로 2012년 ESG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항목

구분	지배구조	사회	환경
평가항목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가사기구 경광과실 배분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자료 : 오덕교(2012)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사회분야의 지표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90.8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소기업은 62.8점, 중견기업은 76.9점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분야의 점수가 낮은 것은 중소기업 등은 사회책임경영이 기업의 수익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오덕교, 2012).

표 3 기업규모별 ESG 점수

구분	기업수	지배구조	사회	환경
중소기업	117	89.6	62.8	87.4
중견기업	331	99.2	76.9	96.3
그 외 기업	262	122.7	121.0	121.9
전체	710	106.3	90.8	104.3

자료 : 오덕교(2012)

또한 기업규모별로 사회분야의 항목별 점수를 보면, 전체 평균점수는 30.3 점이며, 중소기업은 20.9점, 중견기업은 25.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인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기업규모별 평가결과를 보면 더욱더 중소기업 및 중견 등 소규모 업체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파악되었다. 특히 협력사 및 경쟁사 지표의 경우 10.5 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전체 기업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협력사 및 경쟁사 10.5점, 지역사회 11.7점, 근로자 27.2 점, 소비자 54.5점으로 평가항목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협력사 및 경쟁사,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기업경영 및 투자관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4 기업규모별 사회분야 세부항목 점수

(단위: 개수)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전체
근로자	27.2	31.5	42.9	35.2
협력사 및 경쟁사	10.5	16.6	43.4	25.5
소비자	54.5	56.7	70.8	61.5
지역사회	11.7	17.0	32.3	21.7
감점	0.8	1.0	2.8	1.6
계	20.9	25.6	40.3	30.3

주 : 대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나타냄

자료 : 오덕교(2012)

3. 건설업과 ESG, 사회분야 평가

(1) 건설업의 ESG 인식수준

건설분야에서도 ESG는 기업경영 및 투자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 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건설업의 ESG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 조사 ‘보통’으로 평가받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건설업의 ESG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건설업의 ESG 수준평가

구 분	매우 낮은 수준	↔		보통	↔		매우 높은 수준	
		1	2		3	4		5
시공능력 평가순위	1~30위							
	31~100위							
전체								

자료 : 최은정(2021)

향후 ESG 경영과 관련하여 84.1%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변하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건설업계의 준비사항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42.6%가 ESG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30위권 이하의 기업은 16.0%에 그쳤다. 즉 ESG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준비사항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최은정, 2021).

(2) 건설업의 ESG 평가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에서 32개 기업의 ESG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체계는 S, A+, A, B+, B, C, D 등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ESG 평가 중 사회분야에서는 1개 기업이 A+, 2개 기업이 A, 그리고 7개 기업이 B+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32개 기업 중에서 22개 기업이 B와 C의 평가점수를 받았다. 전체 ESG의 평균점수가 2.97점이며, 사회분야의 경우에는 3.22점으로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지배구조(3.53)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표 6 건설업의 ESG 점수

기업군	기업수	지배구조	사회	환경
S	0	0	0	0
A+	0	0	1	2
A	4	3	2	4
B+	4	14	7	0
B	12	12	15	10
C	11	3	7	11
D	1	0	0	5
전체	32 (2.97)	32 (3.53)	32 (3.22)	32 (2.78)

주 : ()의 점수는 S 7점, A+ 6점, A 5점, B+ 4점, B 3점, C 2점, D 1점을 부여한 평균값임
 자료 : 빈재익(2021)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III. 도시재생과 사회분야, 중소건설업의 역할

이 조사의 결과는 건설업계의 상위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평균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계 또한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친환경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ESG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최은정, 2021). 또한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보다 ESG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수 없는 중소 건설업체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판단되며, 기존의 평가체계와는 달리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및 투자환경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안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조사 및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경우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내에서 지속가능경영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자본규모가 적어 ESG를 위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견 및 중소건설사도 ESG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친환경(E), 개별기업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배구조(G) 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행에 부담이 적은 사회적 책임(S)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홍성진 외, 2021).

이를 위한 시도로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중소건설업체의 새로운 역할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분야(Social)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총 158개 기업을 지정하였고, 17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비롯한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기업이면서 도시재생의 전문성을 갖춘 중소건설업의 참여·확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지역,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특히 ESG의 도입과 관련한 투자관점에서 접근하면 건설업의 경우 금융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금융업의 변화와 연계하여 건설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 및 금융기법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계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사회분야에서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SG 이슈에 대한 대응은 중소기업계는 업무 및 비용 측면에서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ESG의 경영 및 투자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계가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분야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 성과에서 가치로, 새로운 미래의 혁신적 시그널과 생존전략, 한스미디어, 2021
2. 김국현, 세계는 지금 ESG 혁신중,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본 ESG 경영, SK hynix Newsroom, 2021
3. 오덕교, 중소·중견기업의 ESG 현황분석, 기업지배구조리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
4. 홍성진 외,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지역·주민밀착형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모델 연구, LH 토지구획연구원, 2021
5. 빈재익, 2020년 건설기업 ESG 평가, 건설동향 브리프 제812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6. 최은정, 건설업 ESG 경영, 중요성 인식하나 여력은 부족, 건설동향 브리프, 제822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지역브랜드 창출·청년 일자리·시공교육 등 11개 우수사례 성과 확산-”, 2020. 12. 31. 보도자료.

(G)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ESG 조성방안 : 지배구조·협력을 중심으로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parksungu@ricon.re.kr)

- I. ESG 의미와 중요성
- II. 건설산업 ESG 적용과 문제점
- III. 건설산업 ESG 방향과 조성방안

3

I. ESG 의미와 중요성

1. ESG 확산 배경

기술혁신, 세계화 등을 거치며 세상은 가까워지고 편리해졌으나, 여러 문제점 역시 노출되었다. 노동의 몫이 감소하는 반면 자본의 몫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부정적 외부효과로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오염 역시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극화는 개인을 넘어 기업,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에 전통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산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ESG이다. ESG는 장기적으로 주주 자본주의에 비해 우위가 있을 수 있고, 외부효과와 대리인 문제를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 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문자를 조합한 용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E(환경)에서는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오염, 자원 및 폐기물 관리, S(사회)에서는 고객만족, 인권보호, 근로자 안전, 지역사회 관계, G(지배구조, 협력)에서는 기업윤리, 반부패, 공정경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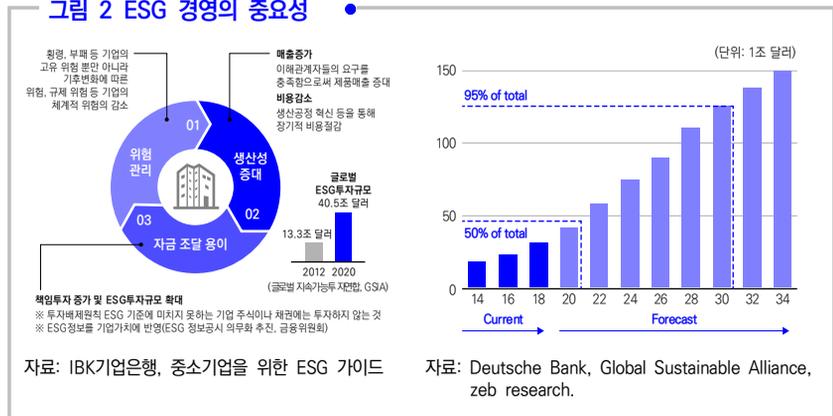
그림 1 ESG 확산 배경



2. ESG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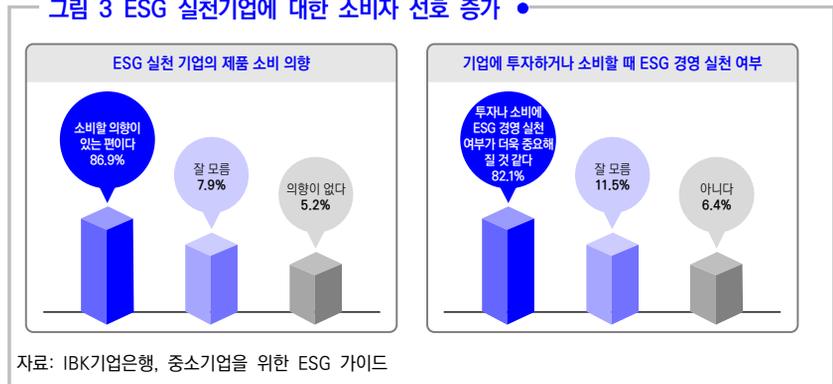
ESG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경영 측면, 투자 및 자금조달 측면,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이 이전에 비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ESG는 경영에 따른 위험관리와 함께 재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기회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 부패 등 기업의 고유위험과 더불어 기후변화, 규제 등 체계적 위험까지 감소시켜 준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충족을 통해 매출증대, 생산공정 혁신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절감에도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ESG 성과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기업 재무요소와 더불어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겨났다. 서명 기관은 '21년 기준 3,634개(19년 상반기 대비 53% 증가)로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실제로 세계 지속가능투자 연합(GSIA)에 따르면 '20년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약 40.5조 달러이며, '30년까지 13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 ESG 경영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ESG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소비자들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 이후 2020년 12월부터 ESG 검색량 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도가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ESG 실천기업의 제품 소비 의향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으며, 이러한 선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림 3 ESG 실천기업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II. 건설산업의 ESG 적용과 문제점

1. 건설산업의 ESG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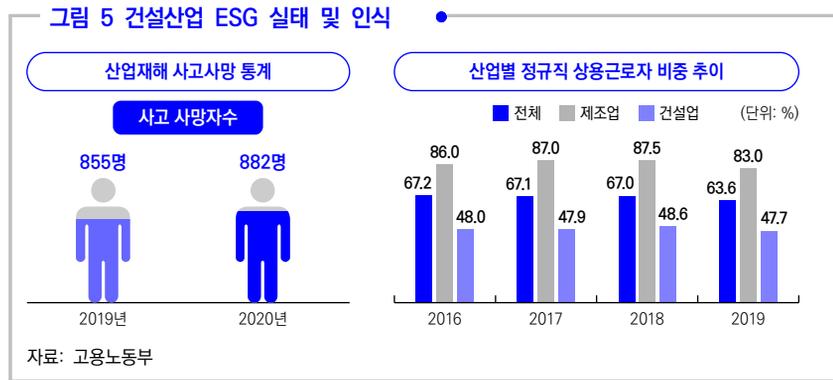
건설산업은 여타의 산업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ESG에 대한 이슈 또는 정의도 건설산업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SG의 세부요소를 건설산업에 적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4 ESG 세부요소의 건설산업 적용

건설산업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협력)
환경오염 (소음/먼지/오염물질)	안전관리 (사고예방, 교육강화)	기업윤리 (뇌물/반부패/담합)
친환경건축 (그린, 제로에너지)	지역사회 관계 (현장, 고객불만 최소화)	이해관계자 협력 (원하도급관계, 공급망)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인적자원관리 (고용, 능력개발)	지배구조 (기업승계, 내부거래)

2. 건설산업 ESG 적용의 한계

그러나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ESG 관련 실태와 외부 인식은 매우 열악하다. 건설업의 대국민 이미지는 부실시공, 3D업종, 안전에 취약한 산업 등으로 부정적이다. 실제로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조사에서는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전에 취약한 산업으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 역시 임시직 근로자 중심으로 안정성이 취약하며, 최근에는 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직적 생산체계 내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와 근로자/장비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ESG는 일부 대형건설사, 상장건설사 중심으로 도입,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ESG 도입의 유인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ESG 평가 건설업체는 10개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ESG 등급의 활용도가 현재까지는 주로 투자유치, 채권발행 등 금융분야에 집중되어 단순 간접금융(은행차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ESG 평가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고 비공개가 많으며, 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건설제도 역시 ESG 확산에 장애요소가 된다. ESG의 적용, 실천을 위해서는 초기에 일부 공무원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현재 가격경쟁 중심의 입·낙찰 환경하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이밖에도 ESG 평가는 개별기업의 판단에 따른 임의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확산에 부정적이다. 건설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 수로는 98%, 종사자 기준으로는 80%가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의 확산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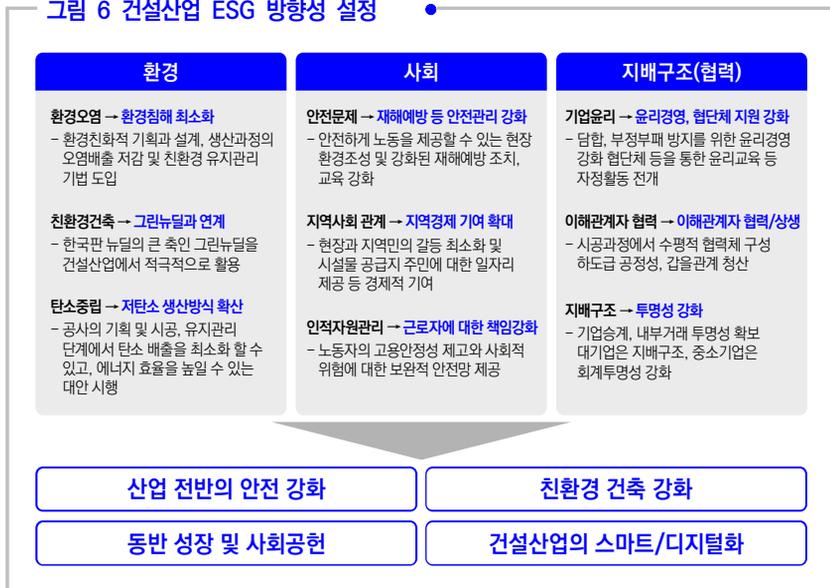
Ⅲ. 건설산업 ESG 방향과 조성방안

1. 건설산업 ESG 방향성

건설산업 내 ESG 확산속도가 늦은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 ESG를 경영활동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시장과 산업에서 기업가치 제고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ESG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건설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ESG 기준을 마련하거나 활동을 시작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그린인프라 확대, 친환경 공법 개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안전문화 내재화, 사람중심 조직문화 추구, 협력회사 동반성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산업의 ESG 방향성을 설정하면 그림 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환경문제(E)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 기초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부문(S)에서는 산업전반의 안전을 강화해야 하며, 지배구조·협력(G)에서는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업 ESG 전반의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스마트 및 디지털화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건설산업 ESG 확산을 위해 G(지배구조·협력)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과 조성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 6 건설산업 ESG 방향성 설정



2. 건설산업 ESG 조성방안(지배구조·협력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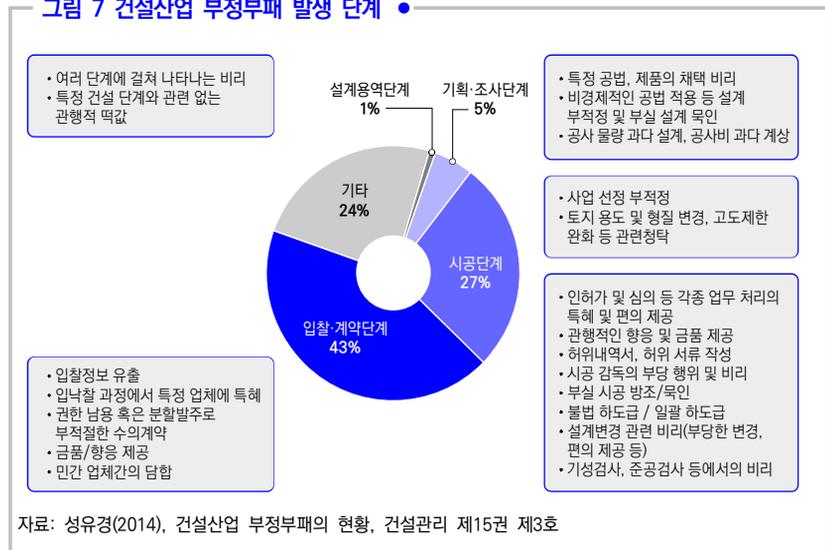
(1) 윤리경영 강화

건설업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정부패 산업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매년 전국 사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건설부문의 부정부패는 늘 최상위권이다.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지적되었다. 또한, 기획·설계단계, 입찰·계약단계, 시공단계 등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설업에서 부정부패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수산업이라는 건설업 특성과 더불어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경직된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처벌보다 이익이 크다는 잘못된 의식구조 역시 문제다.

부정부패,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리경영을 통해 약속을 털어내야 하며, 조직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활동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협·단체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도덕성 강화 노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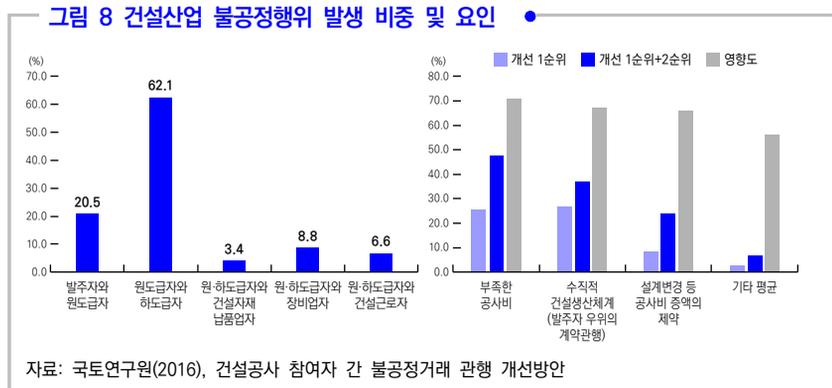
그림 7 건설산업 부정부패 발생 단계



(2) 공정거래 문화 확산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원-하도급자간(62.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20.5%), 원·하도급자와 자재 및 장비업자간(12.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생산체계 내에서 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자-근로자는 협력적 관계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나, 현실에서는 적대적 관계로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상당하다.

공정한 건설산업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공사비 확보가 중요하다. 부족한 공사비로는 결국 생산체계 하단으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입·낙찰제도 등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미 법에서는 기업간 분쟁해결을 위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사후적·사무중심으로 운영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수준이다. 대안으로 사전적·현장중심의 신속한 분쟁 처리 방식인 사전조정제도(DRB)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스스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건설시장을 위해 민·관·산 차원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일은 중요하다. ESG를 차치하더라도 신뢰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3) 투명성 강화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M&A, IPO, 기업승계 등에 있어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역시 건설업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경우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기업가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에 있어 노조의 반발, 매각 공정성 등에 대한 시비가 있었는데,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M&A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중요하며, 본업과의 시너지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이슈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중소건설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면허의 양수와 양도가 잦은 편인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회계상 분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투명한 기준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적 지원 방안

건설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ESG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ESG의 확산과 보급이 중요하므로 건설산업 구성원들이 ESG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ESG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설 관련 기관에서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 차원에서 ESG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ESG 활용이 관건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같이 ESG 평가결과 등도 계량화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초기에는 희망 기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ESG 평가결과를 공시하되, ESG 평가기업을 우대하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발주자 및 원도급 업체가 건설업체 및 하도급사 평가시 활용하거나, ESG 역량을 갖춘 건설업체에 유리한 입·낙찰제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에 적합한 ESG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규범을 충족하면서 한국적 현실과 건설산업 상황을 반영하도록 평가 방법을 정

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 ESG 평가 및 공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육성하고 선정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ESG에 대한 논의가 2020년 이후 산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에 있어 ESG는 막연하고 어려운 영역이다.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ESG의 정착과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SG는 건설기업에는 위기일 수도 있으나,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에게는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2. 국토연구원(2016), 건설공사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방안
3. 성유경(2014), 건설산업 부정부패의 현황, 건설관리 제15권 제3호
4. 자본시장연구원(2021), 기업의 ESG 경영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ESG 평가 안내
6. 한국행정연구원(2021),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7. Deutsche Bank Research(2019), Climate change and corporates: past the tipping point with customers and stock markets
8. IBK기업은행(2021),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

논단 3

건설업의 ESG 대응 방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포스코건설 사례를 통한 건설업의 ESG 대응방안

박철호 포스코건설 기업시민사무국장
(75son@poscoenc.com)

- I. 서론
- II. 포스코건설 ESG 전략
- III. 포스코건설 ESG 추진체계
- IV. 향후 추진방향

1

I. 서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MZ세대로 대변되는 고객층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제품 소비를 원하고 있고, 정부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에 이어 지난해 말 ‘탄소중립 2050’을 발표했으며, 투자기관은 ESG를 투자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분석에 따르면 '20년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지속가능 투자자산 규모는 '16년 대비 54% 증가한 약 35조 달러에 이르고, Deutsche Bank는 '30년 까지 글로벌 ESG 투자액이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촉구하는 등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 위주로 판단했다면 비재무적인 요소인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고, ESG는 더 이상 ‘비재무’가 아닌 기업가치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와 ESG 라는 물결의 중심에는 기업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일찍이 포스코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18년 선제적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사

II. 포스코건설 ESG 전략

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포스코건설의 ESG 전략과 추진체계를 통해서 건설업의 ESG 대응방안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사와의 공생가치 창출 및 환경을 고려한 비즈니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 지역사회와 신뢰 구축,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을 전략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ESG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장 이하 쉰 임원과 3개 분야(환경, 지배구조, 건설산업)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시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UNGC, CDP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SASB, TCFD 등 글로벌 공시기준에 따라 관련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림 1 포스코건설 ESG 전략체계도



III. 포스코건설 ESG 추진체계

1. 환경 (Environmental)

(1) 기후변화 대응

전 세계적으로 폭염, 대형산불, 코로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과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금융기관의 ESG 투자 확대, 고객과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관심증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 탄소배출량(7억톤, '19년)의 22%를 건설부문이 유발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되었다. 탄소배출량은 배출원에 따라 구분되는데 주로 시공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인 Scope 1,2가 약 3% 수준인데 반해, 자재의 제작, 운송, 준공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가 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포스코건설은 '20년 건설업 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1년에는 자체적으로 '2050 Carbon Negative' 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① 2050 Carbon Negative 전략 수립과 실행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 포트폴리오 및 Supply Chain 변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태계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목표로 '30년 30% 감축, '40년 60% 감축을 거쳐 '50년 Carbon Negative 달성을 위한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후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협의체인 P-GRT (POSCO E&C Green Round Table)를 운영 중이다. 활동결과는 임직원과 협력사 전파교육, 그룹사 사례소개, 대외 홍보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공유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 성과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저탄소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신기후 체제에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저탄소 비즈니스 전환으로 위기를 기회화 하고자 한다.

'13년 송도에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인 '포스코 그린빌딩'을 건립한 데 이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가 국내 최초로 비주거시설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것을 토대로 저탄소 친환경 건축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수소 500만톤 생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의 친환경 정책 확대에 발맞춰 수소 인프라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Orsted)와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③ 미세먼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무인살수기'와 '음파를 이용한 실외공간 미세먼지 유입차단 기술'로 각각 국회의장상과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하였고, 국내 최초로 소음예측 Quick-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하여 기존 2개월이 소요되던 소음피해 예측을 3일 내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친환경 근무복

버려지는 폐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근무복을 직원들이 직접 착용할 예정인데, 폐 페트병 소각시 배출되는 탄소 4.5톤도 줄이고, 자원 순환체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투명 페트병 모으기' 행사도 진행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 생물다양성 보존과 환경보전

기후변화 다음으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환경보전이다.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 착공 전 사업장 인근 생물 개체를 파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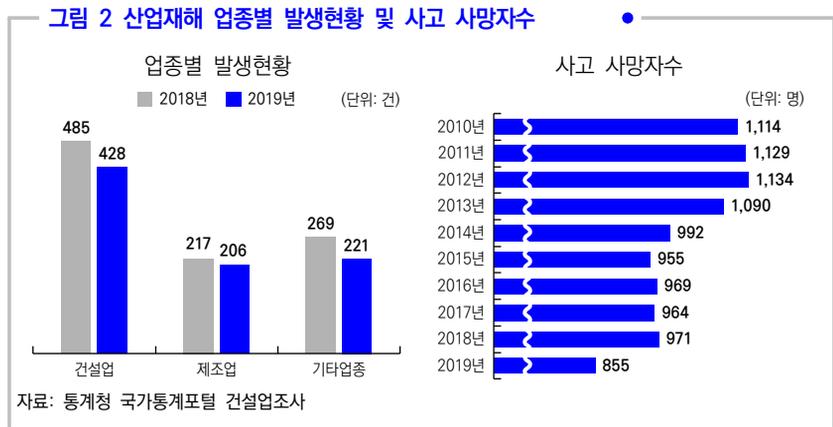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서 영역동물인 동네 고양이 울음소리, 배설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15개소의 '동네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지향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시공현장 인근의 부실하고 열악한 유기견 돌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친근감 있는 시설로 개조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오염 예방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인 '사랑 海, 바다 SEA'를 펼치고 인천, 삼척, 울산, 새만금 등 전국 4개 해안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는 '클린오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2. 사회 (Social)

(1) 안전한 사업장

건설산업에서의 '안전'은 근로자의 인권과 직결되고, 건설업은 타 업종 대비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으며,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안전사고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안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중대재해 Zero달성을 목표로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건설현장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Smart Safety

Solution'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출입관리, 스마트 영상장비, 호이스트/개구부 안전, 화재/질식 안전관리 등 다양한 요소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의 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 스마트 건설 기술·안전대전'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임직원,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누구나 익명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신고하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즉시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요공종 대상 협력사들의 안전진단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협력사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안전 경영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공급망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정확한 물량 예측이 힘들고, 연간 공사물량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의 상시 고용이 어려워 전문건설업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추이를 보더라도 '19년 기준 협력사로 부티의 조달비율이 82.71%에 달한다. (외주비 58.44%, 재료비 24.27%)

특히, 건설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인 철근, 시멘트 등은 제조, 시공, 운영 수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시공사 뿐 아니라 공급사, 운송사 등 관련회사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포스코건설은 ESG가 공급망에도 정착될 수 있는 구매체계를 수립하였다. 협력사의 등록, 평가, 입찰과정에서 가격, 품질, 납기 준수 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비즈니스 윤리와 같은 ESG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크레더블'과 공동으로 '협력사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21년 하반기부터 협력사 등록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공정, 공존, 공감, 공유, 공생의 '동반성장 5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협력사 ESG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녹색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에 대해 등록시 가점을 부여하며, 입찰 시에도 각종 우대방안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한 구매도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1 녹색제품(저탄소/친환경 자재) 구매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녹색제품 구매금액	1,000	2,700	3,000	3,200	3,500

(3) 지역사회 나눔동행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배려와 공존을 이행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20년에는 'WITH [Worth(가치있는), Impact(임팩트 있는), Touching(감동이 있는), Harmony(이웃·자연이 조화로운)]'를 목표로 건설업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3년 부터 소방청과 협업하여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년에는 전국 8개 현장과 8개 소방서가 참여하여 화재에 취약한 120가구를 대상으로 연기 및 열 감지기, 분말소화기 등 화재 안심키트를 설치하고, 낡은 배전반과 전선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Eco-Dream' 사업은 지역사회 노후시설 31개소에 대한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환경문제 해결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해외 개발도상국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18년부터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현장 인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조적, 미장, 목공 등 초급 기능공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여건에 맞추어 개발한 건설기능인력 앱을 통해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지역 청년 160명이 양성교육에 참여하여 그 중 우수 수료자 67명을 당사 발전소 현장에 채용하는 등 '20년 까지 295명을 양성하였고, '23년 까지는 총 895명의 청년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3. 지배구조 (Governance)

(1) 경영층의 ESG 의사결정 체계

전사 차원에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임원, 직책자, 실무자 단위별로 각각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그 중

‘임원 카운슬’은 사장 주재로 쏠 임원이 참여하여 회사의 전략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UN SDGs 달성을 위한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사업 발주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사업의 수주검토 단계부터 수행 전반에 걸쳐 ESG 관련사항을 연계 검토하여 경영진의 의사 결정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고, Project Life Cycle 각 단계별 ESG 측면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 그린 파이낸싱 확대

최근 투자자들의 ESG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의 ESG 채권 발행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년 Sustainalytics의 인증을 받아 국내 건설사 최초로 1.2천억원 규모의 해외 ESG 채권을 발행하였고, '21년에는 한국신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1.4천억원 규모의 국내 ESG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조성된 채권은 중소 협력사 기성 조기지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 동반성장 펀드조성, 성과공유제, 친환경 교통수단 건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등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에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협력사의 경영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였다. 이는 법 위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한 교육과 감독 등 회사 내부 준법시스템의 자

IV. 향후 추진방향

올준수 실천을 위한 행동요소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프로그램 이행 결과, 법 위반, 서면실태조사 지적, 신고 건수 감소효과가 있었고, '20년에는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산업 소분야의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특히, 건설회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포트폴리오 강화와 함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력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이고, 인권 측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 맞게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단일 주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확산되는 형태로 변모할 것이고,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정책방향에 따라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Value Chain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포스코건설도 기존 추진 중인 활동을 바탕으로 기업 여건과 사회 트렌드에 맞는 ESG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첫째,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친환경 사업 확대와 함께 제로에너지건물과 에너지 자립률 향상기술 확보를 통한 '2050 Carbon Negative'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 관리체계에 ESG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녹색제품 구매 및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하며, 협력사의 안전관리 자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인증제 시행 및 ESG 관련 교육과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사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Th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GSIA (2021)
2. Big data shakes up ESG investing, Deutsche Bank
3.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2019)
4. 국가통계포털 건설업조사, 통계청
5.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추이, 대한건설협회
6. 2020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2021)

건설사업의 ESG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 I. 서론
- II. ESG의 부각과 건설산업의 특성
- III. 건설산업의 ESG 도입현황과 한계
- IV.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 V. 결론

2

I. 서론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준말로써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기준이 되는 요인을 말한다.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UN PR)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ESG가 이들이 투자의사결정에 반영되면 ESG투자, 기업의 경영방침에 반영된다면 ESG경영이 되는 식으로서 적용범위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

지금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ESG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산업에서도 ESG는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의 적용이 한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살펴보고 적절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ESG의 부각과 건설산업의 특성

1.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닌 ESG

ESG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지만 그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기존의 사회책임투자를 ESG라는 3개 분야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사회적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개념을 안다면 ESG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자의사결정에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념적으로는 ESG투자와 지속가능투자 등을 포함하게 된다.

사회책임투자의 시작은 윤리규범을 투자결정에 적용한 것으로서 유해산업(술, 담배, 도박 등)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식의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반전·인권·사회·환경운동이 더해지면서 더욱 부상되었다. 초기에는 Governance 등의 측면에서 당위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친환경분야의 인프라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수익률도 중요해지면서 종전에는 관심분야가 아니던 부동산이나 사모펀드같은 분야에서도 사회적책임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UN책임투자원칙의 주요 내용은 최적의 장기투자수익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비재무요소인 ESG를 재무지표와 함께 투자결정에 반영토록 권고한 것이다. 동 원칙은 ESG투자의 초기개념은 물론 사회적책임투자의 주류화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ESG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책임투자의 이상론적인 요소가 더욱 크다고 내용으로 이해하면 용이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경제적이거나 수익률을 중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적책임투자와 ESG가 강제적무사항은 아니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ESG와 관련이 큰 건설산업의 특성

ESG측면에서 건설산업이 갖는 연관성은 매우 크다.

먼저, 건설공사는 실내보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그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사업과 보존간의 의견차이나 갈등도 쉽게 발생한다. 현장환경(공사과정의 소음이나 먼지), 자재의 환경적 영향, 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 등도 필연적인 사안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건설기업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건설산업에 속한 공급망에 연결된 관계자들의 이익과 복리 증진, 건축물의 성격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조율,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 현장노동자의 인권, 고용창출과 안정성, 인력수급에 따른 일자리창출 등이 예시이다. 또한 분업과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건설업을 구성하는 주체들간의 협력과 제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표 1 건설산업의 특성

기업명	내 용
수주산업·수요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생산은 해당 시설물의 수요독점자인 발주자(소비자)의 주문이 있어야 수주한 업체에 의하여 생산이 시작됨. • 발주자가 가격, 품질,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됨
현장생산·토지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생산은 현장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생산과정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현장소음과 먼지, 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안전, 주민관계 등이 중요.
복합생산·분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생산은 복합적 생산과정. 따라서 분업적 방식에 의한 생산이 필수적임. • 기획·설계·시공 과정의 환경적 접근, 하도급의 공정성, 안전과 보건, 산재, 근로자 인권과 복지, 자재의 환경성 등이 중요(수평적 분업)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프로세스에 따라 분업이 발생(수직적 분업) 원도급공사를 공중에 따라 분리하여 시공하는 하도급이 수직적 분업에 해당
계절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생산은 일회적 과정으로 종결. 고용의 연속성, 인력수급의 원활,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중요 • (프로젝트 중심의 일시적 생산조직) 생산조직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회성으로 구성되며 시설물이 준공되면 생산조직은 해체. (기간제고용이 일반적) 인력과 장비에 대한 고용이 일회적이며 관리네트워크가 중요.

III. 건설산업의 ESG 도입현황과 한계

1. 건설산업에서의 ESG 도입현황

국내 건설사들도 ESG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는 과정에 있지만 산업 차원에서 ESG를 포괄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공사 수주와 함께 해외사업 진출과 성공적인 현지화전략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만, ESG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에 따라 어떤 획기적인 이벤트나 기존에 없던 성과를 제시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 인근에서 주민들을 기능인력으로 고용한다거나 지역업체가 제조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ESG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볼 수 있다. 설계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출력에 사용되는 종이소요량을 절감하는 것은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다각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 사안이다.

표 2 국·내외 주요 건설사들의 ESG 적용 사례

기업명	내 용
(미국) 백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를 반영한 현지친화적 해외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가 수행한 코소보의 고속도로사업(Route 6)에서는 친환경설계를 적용. 참여인력의 80%를 현지인으로 고용하고 하도급공사의 70%를 지역업체가 담당. 100,000시간의 경력·전문교육을 실시. • 현지 학생들 대상의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동화노력 • 미국 내에서도 장기프로젝트의 사업지 인근의 학교들에 전문인력수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일본) 오바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의 CO2 배출량, 용수사용량 등의 감소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 • 통합시스템의 도입으로 종이사용량을 대폭 감소 • 건설폐기물의 배출감소와 재활용률 향상, 화학물질 등의 유해요소 집중관리 •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친환경 기업 육성 • 건설숙련인력 확보 및 협력사와의 상생관계 강화 (인증된 우수 현장 감독관·기업에 보조금지급 등) • 환경회계, 환경성과지표, 생물다양성 등도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 등
삼성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와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 (온실가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건축물 건립위한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공법을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기획, 설계, 시공, 운영단계의 전 단계에 적용
SK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통해 경제적가치(EV)와 사회적가치(SV)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 인수(전국에 걸쳐 다수의 수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운영) - 국내 기업들의 RE100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등 • 신용평가사와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 MOU 체결
DL이앤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체험학교 운영 및 안전혁신활동을 통한 무사고 작업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규모확대 및 콘텐츠 추가, 교육인원 증대

2. 건설산업에서의 ESG적용 한계

건설산업과 ESG의 연관성은 크지만 실제 사업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의 ESG평가에는 대량의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요구됨에 따라 평가기관도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ESG평가를 예시할 때 흔히 언급되는 모건 스탠리의 평가 방식(MSCI)이 대표적이다. 국내 전문평가사들의 방법론도 ESG의 세부요소들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부정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 MSCI(Morgan Stanly Capital lternational) ESG평가 (요약)

단계	내 용
1단계	• 2,100여개 미디어소스에서 공개데이터(정부, NGO, 기업공시자료 등)를 수집하고 표준화
2단계	• 검증과정을 거쳐 Peer그룹에서 상대적인 리스크평가
3단계	• 자체 방법론을 사용해 ESG를 항목별로 10개 테마, 37개 핵심으로 분류, 점수부여(1~10점)
4단계	• 개별기업에 대한 최종 ESG등급 부여(AAA~CCC)

때로는, 대상기업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된다. 가령 피평가 기관의 자본력 등이 우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을 수도, 평가항목을 산업별로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위험요소가 누락될 수 있다. ESG평가지 세부항목에 대한 방법론과 모형이 비공개되면,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ESG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 지 막막해진다. 때로는, 기업에 긍정적인 요인만 부각하는 상황(Green Wash)도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에서도 ESG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ESG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제출자료 등의 규모가 적지 않고 ESG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ESG등급의 활용도가 주로 투자유치, 채권발행 등 금융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ESG확산의 저해요소로 볼 수 있다.

물론, 전후방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ESG가 확립된다면 적용범위도 결국 확대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별 실무자들의 일반적인 반응도 ESG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IV.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1. 건설산업 ESG조성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ESG를 택하도록 한다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일수록 ESG의 적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ESG의 확대를 꾀한다면 산업 레벨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수적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에 속하는 건설업체는 그룹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더라

도, 중소기업에서는 ESG에 대한 접근방법을 교육하고 ESG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요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주요 특성이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필수적이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ESG 역량을 충족하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적정역량을 갖춘 하도급업체를 찾아야 한다면, 하도급업체에 적합한 별도의 ESG 평가기준이 정립되고 확산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서 ESG를 적용하고 건설과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설 및 개발 사업에서 지역사회 발전 등을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체적인 복리를 증진하는 체계로도 연결된다.

표 4 협력사 관리에서 ESG를 적용한 사례

기업	내 용
현대건설	· '14년,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도입(업계 최초로 ESG항목 포함) · '20년, 협력사를 자재·시공분야로 분리해 평가 (노동·인권·인재개발·산업안전 등 포함)
삼성물산	· 협력사 모집시 노동 및 인권분야 평가 실시
포스코건설 SK건설	· 협력사 맞춤형 ESG 평가모형 개발 발표 (중소·건설업에 최적화)

2. 건설산업 ESG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지금은 전문기관마다 ESG평가기준 등이 상이하고 명확히 공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별로 특성이 다르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에 적합한 평가기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국내 실정에 부합하면서 해외에서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K-ESG 지표를 개발중이며, 이와 관련해 금년 상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표 5 참고). 다만, 동 지표는 의무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5 한국형 ESG(K-ESG) 지표 분야별 대표 문항(안)

구분	내 용	문항수
정보공시	ESG정보 대외공개 방식, ESG 정보공개주기 등	5
환경(E)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등	14

구분	내 용	문항수
사회(S)	정규직 비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	22
지배구조(G)	이사회 내 여성인력 수, 내부비위 발생현황, 공개여부 등	20
계	정보공시(5), 환경(14), 사회(22), 지배구조(20)	61

건설산업에 적합한 ESG 평가시스템은 관련 기관들을 포괄하는 평가 플랫폼으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가령 한 기업이 ESG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여러 발주기관이나 타 기업에서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활용도와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건설 ESG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도 발생한다. 동시에 건설업체가 평가에 대비하고 ESG를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ESG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한다.

ESG평가결과를 기존의 시공능력평가액처럼 계량화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SG 역량을 갖춘 건설업체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실무에서는 친환경자재나 친환경 공법의 자발적 사용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만약,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평가기준과 항목에 중점을 두어 ESG표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기업들도 ESG를 도입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지금도 전문기관을 통해 ESG등급을 평가받는 건설사들의 실무진은 평가기관이 제시한 항목에 맞춰서 자사에 가능한 사항을 찾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리기업의 입장에서는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결국은 ESG를 어떻게 기업의 수익에 연계할 것인가가 고민으로 남기에, 이를 ESG표준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건설산업과 국제표준까지 부합하는 ESG 적용 유도

건설기업에 적용되는 ESG표준이 국내 여건만을 반영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ESG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표준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도 세계시장에서 통용가능한 기준을 사전에 다수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표준을 설정하기에 앞서 해외의 사례를 충분히 살펴봐야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W)가 제시한 건설사업자 선정의 가이드라인과 평가항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평가항목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가감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표 6 국제금융공사(IFC)가 제시하는 건설사업자 평가항목(예시)

기업	내 용
환경·사회적 위험/영향의 관리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의 환경, 사회, 보건, 안전정책 • ISO14001·ISO26000./OSHAS18001 등의 관련 인증내역 • 조직도(안전·보건·환경·사회·노동·주주참여 등의 이슈대응 기능) • 최근 3년간의 환경·사회적 업무결과 (처벌내역, 규제관리절차, 이해관계자 불만처리 등) •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시스템(자사의 환경·사회적 기준 등을 준수) • 공급사슬(지역업체를 통한 조달노력, 품질과 가격의 적절여부 등)
노동·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의 보건안전 업무결과(근무시간, 사망·부상·질병 등)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관행 정착유도 정책 • (노동법 등)관련 법률 준수 • 현지 근로인력 채용, 차별금지 • (유해성없는)현장시설표준 준수
자원효율성 및 오염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과정에서 생성되는 폐기물(고형, 유해성 등)의 관리,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폐수관리방안 • 유해물질의 운송·취급·저장 방안 • 사업지의 토양제거와 저장(재활용), 침식방지 등의 관리방안 •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대기수준, 소음관리 방안 •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효율성, 온실가스 배출관리 및 보고 • (공사자재 등) 자원효율성 향상방안
지역사회 보건, 안전,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 대응방안(폭발, 사고, 오염물질 유출 등) •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업차원의 교육·훈련방안 • 지역사회와 접하는 자사·협력업체·하도급업체 직원들의 행동강령 • (지역사회의 반감없이)건설현장의 안전·보안을 유지하는 상세방안
생물다양성·자연자원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안에 대한 기존 대처사례, 향후 발생시 대처방안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돌발사항(유적, 문화유산 등)에 대한 대처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수행했던 건설사업에 적용된 기업의 사회책임사례, 추후 사업에서의 적용계획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은 ESG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ESG의 적용에 따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건설산업에서 ESG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같은 업역이 구분되고 원·하도급관계라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존재하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해 건설관련 여러 사업에 ESG를 적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제고와 사회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건설산업의 ESG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은 평가기관마다 ESG기준 등이 상이하고 평가모형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평가표준을 마련하고, ESG평가시스템은 관련 기관들을 포괄하는 평가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더해 ESG평가결과를 계량화하고 공개하면서 적정역량을 갖춘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SG의 국내표준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도 세계시장에서 통용가능한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ESG기준을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Managing Contractors'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IFC, 2017
2. MSCI Investment Insights 2021, MSCI
3. Deconstructing ESG Ratings Performance: th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vol.47 number 3. Feb.2021
4. The Real Face of Construction 2020 'Socio-Economic analysis of the true value of the built environment', CIOB(the 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5. 각 건설사 사업보고서, 보도자료

Focus ESG와 건설산업

2021년 10월 발행 | 통권 제43호 |

발행인 김영윤

편집인 유병권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www.ricon.re.kr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기획 / 홍성진, 김정주

편집·인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Future Value Creator in Specialty Construction Industry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업 부문
최고의 연구·컨설팅 기관 되겠습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인용될 수 있습니다.

Vol. 43

건설정책저널

ESG와 건설산업